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 분석

박선미*

¹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playfulness,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on-Mi, Park^{1*}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남, 전북지역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2, 3학년 총 164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t 검정과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고, 그릿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일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릿에 대해 놀이경험은 약 10%, 놀이성은 약 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playfulness,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grit. For the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questionnaire targeting a total of 164 students in the 2nd and 3rd yea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colleges in Seoul, Chungnam and Jeonbu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playfulnes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and the grit was at the average level. Secon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lay experience, playfulness, and grit. Third, for grit, it was found that play experience had an explanatory power of about 10% and playfulness about 30%.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grit enhancement program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Play experience, Playfulness, Gri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1. 서론

모든 직업이 그러하겠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양성과정에서부터 녹록지 않다. 교원자격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 인·적성 검사의 통과 등 다양한 관문

*Corresponding Author : Seon-Mi Park(Hyejeon College)

Tel: +82-41-630-5261 email: seonmi@hj.ac.kr

Received June 17, 2021

Revised June 30, 2021

Accepted July 07, 2021

을 거쳐야 비로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여기에 더하여 수업시연과 교재교구의 제작과 같이 유아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도 부여된다. 어렵게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교사가 되고 난 뒤에도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많은 영유아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적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가 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교사가 된 이후 계속 이직을 하거나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사양성과정과 교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변인으로 그릿(Grit)을 꼽을 수 있다.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1]를 의미하며, 실패에 굴하지 않는 인내,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Duckworth[1]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그릿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이직이나 교사직에 대한 포기가 많은 유아교사의 특성 상 꼭 필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또는 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그릿이 교사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으며, 직무 만족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2-5].

그릿의 발달 경향인 관심, 연습, 목적, 희망[1]은 어떤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놀이의 특성과 연결되거나 놀이를 통해 경험 또는 습득 가능한 요인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Duckworth[1] 역시 생애 초기에는 놀이를 통해 그릿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놀이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재미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나로 개인차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6]. Dewey[7]는 놀이성은 변덕스러움과 무심한 태

도가 아닌 자아발달을 추구하며, 정확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개방된 마음이 좀 더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에서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만들며, 일이나 관계 맺기 등의 수행 능력에 있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 9].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놀이성은 그릿이 가지는 특성과 연결 또는 그릿의 핵심인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놀이성은 놀이경험과 매우 밀접하다. Bandura[10]는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환경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환경요인은 또래, 교사, 부모이고, 물리적 환경요인은 놀이감과 놀이 행동, 미디어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11]. 이와 관련하여 Frost[12]는 사회적 환경요인 중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놀이를 즐겁게 하며, 함께 놀기, 주도적 역할하기 등의 행동을 증진시키고, 물리적 환경요인 중 놀이감은 유형과 놀이방법이 단순한 것보다는 변형 가능한 것, 창의적인 놀이감으로 또래와 놀이할 때 놀이시간이 지속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래와 협동하고, 협의하며 놀이한다고 하였다[13].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감, 놀이에서의 역할 등과 같은 놀이경험은 개인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그릿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그릿이 교사의 소진, 효능감 등 교사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어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여 예비교사 개인 변인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초기 그릿 발달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놀이와 관련된 개인 변인 즉, 놀이경험과 놀이성을 선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를 위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충남, 전북 소재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연구 과정에서 1학년은 놀이신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164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놀이경험, 놀이성, 그릿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예비교사의 놀이경험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14]가 사용한 유아교사의 놀이 경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교사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놀이경험을 묻는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 공간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3문항, 놀이 시간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2문항, 놀잇감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5문항, 놀이자와 관련된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문항이 2문항으로 1점에서 5점까지 그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놀이경험 중 대부분이 실내놀이일 경우는 1에 가깝게, 실외놀이일 경우는 5에 가깝게 평정하는 방식이다.

2.2.2 예비교사의 놀이성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Park[15]의 놀이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Glynn과 Webster[16]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을 수정·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도구로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의 4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 도구의 문항은 22개의 형용사 쌍(예: 쾌활한-차분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쌍의 형용사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이다'의 중간점수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형용사 척도 쌍의 왼쪽 문항이 더 높은 점수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2점에서 1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8 이었다.

2.2.3 예비교사의 그릿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알아보기 위해 Kim[4]가 사용한 그릿 측정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Duckworth 외[17]가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18]가 번안한 척도로 지속적 관심을 측정하는 6문항과 꾸준한 노력을 측정하는 6문항, 총 1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 관심 측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열정,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임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0 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쳤다. 이후 설문 문항의 타당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육과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소요 시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놀이신념의 경우 전공 지식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1학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3개 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URL 주소를 발송하였다.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은 164명의 응답(2학년 110명, 3학년 54명)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예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예비유아교사는 어린 시절 실외놀이, 동적 놀이, 대근육운동 놀이를 약간 더 많이 하였으며, 놀이를 주로 하였고 놀이 시간은 약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잇감에 있어서는 그 개수는 약간 충분하였으며 놀잇감은 구조성은 보통, 그리고 비교적 성유형이 뚜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었다고 응답하였다. 놀잇감은 직접 만들거나 찾아서 놀이하는 것보다 구입하여 놀이한 비중이 약간 높았고 전자매체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주로 집단놀이를 하였으며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놀이하었다고 응답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M=4.76/4.98$, $SD=1.054/.999$), 그릿은 평균 수준 ($M=2.94/3.13$, $SD=.505/.478$)이었다. 각 변인에 따른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놀이경험에서는 놀이의 비중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놀이의 비중이 높았으며($t=2.071$, $p<.01$), 놀이 시간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놀이의 시간이 조금 더 충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2.826$, $p<.01$). 놀이 형태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집단 놀이를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t=2.316$, $p<.05$). 그릿에서는 그릿 전체($t=-2.278$, $p<.05$)와 꾸준한 노력 변인($t=-2.293$, $p<.05$)에서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성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표 1]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

Variables		Grade	M	SD	t
Play experience	① In-outdoor play	2	3.70	1.253	.345
		3	3.63	1.170	
	② Dynamic-static play	2	2.00	1.125	
		3	2.19	1.047	
	③ Large-small muscle play	2	2.78	1.061	
		3	2.44	1.022	
	④ Learn-play proportion	2	4.00	.899	
		3	3.67	1.099	
	⑤ Time of play	2	4.07	1.090	
		3	3.54	1.239	
	⑥ Number of toys	2	3.72	1.006	
3		3.61	1.295	.581	
⑦ Structivity of toys	2	3.11	1.191		
	3	3.06	1.295	.263	
⑧ Gender type of toys	2	3.35	1.044		
	3	3.46	1.004	-.686	
⑨ How to prepare toys	2	3.51	1.098		
	3	3.52	1.314	-.048	
⑩ Proportion of electronic toys	2	2.25	.988		
	3	2.41	1.158	-.931	
⑪ Single-group play	2	4.20	.886		
	3	3.83	1.077	2.316*	
⑫ Role in play	2	3.66	1.052		
	3	3.59	.813	.436	
Playfulness	⑬ Cheerfulness	2	4.99	1.345	
		3	5.40	1.086	-1.956
	⑭ Imagination	2	5.33	.963	
		3	5.60	1.050	-1.627
	⑮ Improvisation	2	4.30	1.039	
		3	4.23	1.305	.354
	⑯ Ingenious	2	4.32	1.408	
		3	4.42	1.387	-.401
	⑰ Total playfulness	2	4.76	1.054	
		3	4.98	.999	-1.627
Grit	⑱ Continual interest	2	2.53	.675	
		3	2.67	.638	-1.282
	⑲ Steady effort	2	3.35	.621	
		3	3.59	.605	-2.293*
	⑳ Total grit	2	2.94	.505	
		3	3.13	.478	-2.278*

* $p <.05$, ** $p <.01$

3.1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을 위해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음으로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릿의 하위 요인 중 지속적 관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변인은 놀잇감의 마련방법이었다. 어린 시절 놀이에서 놀잇감을 직접 만들었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릿의 지속적 관심이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and playfulness of pre-service teacher

[표 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42**	-.134	-.455**	.189*	-.041	.031	-.144	.000	-.135	-.002	.004	.304**
⑭	.210**	-.053	-.292**	.105	-.021	.025	-.069	.057	.041	-.061	.067	.119
⑮	.253**	-.118	-.183*	.148	.154*	.034	-.071	.028	-.024	.137	.034	.107
⑯	.341**	-.174*	-.320**	.108	.082	.086	-.190*	-.067	-.115	.009	.010	.068
⑰	.357**	-.149	-.406**	.183*	.035	.047	-.146	.004	-.098	.033	.023	.230**

* $p < .05$, ** $p < .01$

놀이경험 중 실내-외 놀이는 놀이성의 모든 하위 변인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대-소근육 놀이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실외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대근육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적-정적 활동은 기발성과 부적 상관을, 놀이의 비중은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기발성이 높고, 놀이의 비중이 높았을수록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놀이시간은 즉흥성과 정적 상관을, 놀잇감의 구조성은 기발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놀이에서의 역할은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할수록 즉흥성이, 물·모래·블록 등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였을수록 기발성이 높았으며, 놀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수록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가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대-소근육 놀이와 놀이시간이었다. 어린 시절 놀이에서 대근육 놀이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놀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꾸준한 노력의 점수가 높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릿 전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실내-외 놀이과 대-소근육 놀이, 놀이시간, 놀잇감의 구조성이었다. 즉 어린 시절 실외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대근육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놀이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을수록, 사용한 놀잇감의 구조성이 낮았을수록 그릿 점수가 높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그릿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 관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놀이성 변인은 즉흥성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즉흥성이 낮을수록 지속적 관심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은 즉흥성을 제외한 모든 놀이성 하위 변인과 놀이성 전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and grit of pre-service teacher

[표 3]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⑱	.145	-.076	-.122	-.053	-.152	-.031	-.150	-.129	-.202**	-.048	-.109	.004
⑲	.152	.004	-.217**	.025	-.204**	-.034	-.142	-.009	-.030	-.042	-.043	.050
⑳	.190*	-.048	-.215**	-.019	-.226**	-.042	-.188*	-.091	-.152	-.058	-.098	.034

* $p < .05$, ** $p < .01$

즉, 놀이성이 높을수록 꾸준한 노력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릿 전체 역시 즉흥성을 제외한 모든 놀이성 하위 변인 및 놀이성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놀이성이 높을수록 그릿 점수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and grit of pre-service teacher

[표 4]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그릿 간의 관계

	⑬	⑭	⑮	⑯	⑰
⑬	.147	-.019	-.212**	.084	.041
⑭	.475**	.429**	-.014	.332**	.394**
⑮	.389**	.253**	-.149	.261**	.270**

**p <.01

3.2 예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놀이경험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릿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는 놀이경험 변인으로는 대-소근육 놀이($\beta = -.180$), 놀이시간($\beta = -.294$)이 있었으며 약 1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는 놀이경험 중 대근육 놀이의 비중과 놀이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인식이 예비교사의 그릿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Table 5]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play experience on grit

[표 5] 그릿에 대한 놀이경험의 상대적 설명력

Dependent	Independent	B	β	R ²	ΔR^2	F
	(Constant)	3.827				
	①	.049	.119			
	②	.012	.026			
	③	-.086	-.180*			
	④	.005	.009			
	⑤	-.127	-.294**			
Grit	⑥	.046	.103	.175	.109	2.643**
	⑦	-.045	-.110			
	⑧	-.023	-.046			
	⑨	-.024	-.056			
	⑩	-.024	-.049			
	⑪	-.075	-.143			
	⑫	.045	.088			

*p <.05, **p <.01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놀이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과정에서 놀이성 하위 변인 중 쾌활성은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놀이성은 그릿에 대해 약 31%($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으로는 즉흥성($\beta = -.812$)과 놀이성 전체($\beta = .948$)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흥성은 부적 영향을, 놀이성 전체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playfulness on grit

[표 6] 그릿에 대한 놀이성의 상대적 설명력

Dependent	Independent	B	β	R ²	ΔR^2	F
	(Constant)	2.787				
	⑭	-.116	-.230			
Grit	⑮	-.361	-.812***			
	⑯	.040	.111			
	⑰	.459	.948***	.327	.310	19.062***

***p <.001

4.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고, 그릿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놀이경험에서는 놀이 비중과 놀이 시간, 놀이 형태에서, 그릿에서는 그릿 전체와 꾸준한 노력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릿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그릿 점수가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Ha 외의 연구[19],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고 문제행동 지도전략 수준이 높았다는 Kim[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

비유아교사들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교사양성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을 하게 되기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릿 점수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놀이경험과 놀이성에서는 실외놀이, 대근육놀이, 동적인 놀이, 놀이의 비중, 놀이 시간, 비구조적 놀잇감, 놀이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놀이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계에서는 놀잇감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근육놀이와 실외 놀이를 많이 하였으며, 놀이 시간은 부족하였다고 인식하고,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 경험이 그릿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놀이의 특성을 종합하면 즐거움, 자발성, 능동적 참여, 상징성, 비실제성, 과정지향성,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등 일곱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21]. 또한 유아들이 제시한 놀이의 기준에서 유아들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교사의 기대와 참여 정도가 낮으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고, 신체적 활동이 대부분이며, 항상 즐거운 활동을 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즉 더 '놀이스러운' 놀이경험이 개인의 놀이성, 그릿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놀이경험 중 놀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그릿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몰입이라는 요소와 함께 검토할만한 결과이다. Na[23]는 몰입을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화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흥미, 유쾌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가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Csikszentmihalyi[24]는 몰입의 특징 및 몰입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위와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 목적적 경험의 9가지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몰입의 특성은 놀이가 가지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식한 것은 실제로 놀이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나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놀이에 몰입을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놀이성과 그릿에서는 놀이성 하위 변인과 그릿의 꾸준한 노력, 그릿 전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과 그릿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그릿과 유사한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 역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도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17], 회복탄력성 역시 고통이나 역경에 의해 상처받지 않으면서 잘 견뎌내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5]. 유아의 놀이성이 회복탄력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Park[26]의 연구를 볼 때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그릿 역시 놀이성과 의미있는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그릿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놀이경험은 그릿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문제 1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두 요인 간에는 분명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성은 그릿에 대해 약 30%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상관분석 결과 해석에 제시한 것처럼 놀이성이 그릿과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릿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hoi[27]는 놀이성이 몰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으며, Duckworth[1]는 몰입과 그릿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몰입과 회복탄력성을 포함하는 그릿에 놀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유아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와 소진, 이에 따른 이직이나 교직 포기를 줄이는 데에는 그릿의 증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릿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의 놀이성 발달이나 회복탄력성, 몰입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경험과 놀이성이라는 변인이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놀이경험이나 놀이성 그 자체가 아닌 놀이경험에서 얻게 된 몰입과 회복탄력성 등이 그릿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에서 몰입이나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매개 효과 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A. L. Duckworth,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eoul: Businessbooks, 2016.

[2] Y-J. Kang, "The Effect of Grit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21.

[3] H-K. Kang,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Grit and Teacher Efficacy on Psychological Burnout,"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2020.

[4] A-N. Kim,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calling and grit on their burnou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20.

[5] D. Jang,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Grit on Turnover Inten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9.

[6] S. Jung,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layfulness Scale for Adul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8.

[7] J. Dewey,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Boston: Health and Company, 1933.

[8] L. A. Barnett,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pp. 949-958, 2007.

[9] C. Schaefer, and R. Greenberg, 'Measurement of playfulness :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Vol. 2, No. 6, pp. 21-31, 1997.

[10]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11] J. Kim, 'Investigation on Bandura's Modeling Viewing Processes and Vygotskian Approaches to Design Artistic Play,' *Journal of Art Education*, Vol. 49, pp. 255-284, 2017.

[12] J. Frost, *Play and Play Scapes*, Albany, New York: Delmar Publishers, 1992.

[13] S-J. Park, "The Effects of Experiencing Collaborative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Kindergarten,"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14] S-H. Le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lay Memories and Beliefs about Pla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15] H-S, Park, "A study on mother's playfulness with her child in early childhood,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16] M. A. Glynn, and J. Webster, 'The adult playfulness scale :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Vol. 71, pp. 83-103, 1992.

[1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and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18] S. Lee,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5.

[19] H-S. Ha, H-J. Lim, and M-H. Hwang, 'The

-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1, pp. 371–388, 2017.
- [20] K. Kim, "Effects of Grit and Teaching Efficacy on Managing Strategies for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mong Child Care Teacher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8.
- [21] J. L. Frost, S. C. Wortham, and R. S. Reifel, *Play and child development*, Boston, MA: Pearson, 2012.
- [22] L. A. Wing, 'Play is not the work of the child: young children's perception of work and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0, No. 2, pp. 223–247, 1995.
- [23] E-S. Na, 'Understanding of the Finding Flow in Young Children's Free-choic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8, No. 4, pp. 67–90, 2008.
- [24] M. Csikszentmihalyi,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 Bass, 1975.
- [25] F.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1998.
- [26] E-J. Park,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on the Resilience,"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Gunsan*, 2020.
- [27] J-H. Choi, "The Effect of the Worker's Playfulnes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Flow at Work,"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